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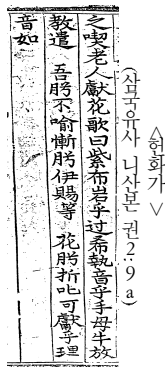
# 〈獻花歌〉 解讀 再考

박재민(서울시립대)

- 1. 문제제기
- 2. 본론
  - 2.1. 慚伊賜等の ‘等’
  - 2.2. 放教遣의 ‘遣’
  - 2.3. 執音乎手の ‘音’
  - 2.4. 獻乎理音如의 ‘獻’
  - 2.5. 문학적 의의
- 3. 結論

## 1. 문제제기

「獻花歌」는 『三國遺事(권2)』에 실려 전하는 4구체 향가<sup>1)</sup>로 그간 학계의 다양한 관심을 받아왔다. 그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문학적 해석과 어학적 해독이 그것이다. 그러나 문학적 해석에 대한 이견이 주로 배경설화에 등장하는 노인 · 암소 · 꽃 · 수로부인의 상징성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났던<sup>2)</sup> 반면, 어학적 해독은 한 두 구절의 독법에 관련된 것이기에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정황은 다음의 언급들에서 확인된다.



1) 실제로는 옆의 그림처럼 3분절되어 있지만, 소창진평 이래 전통적으로 4구체 향가로 분류되어 있다.  
 2) 각 연구자들의 견해에 대하여는 김영수(『삼국유사와 문화코드』, 일지사, 2009, pp.86-112.)를 참조할 것.

<헌화가>의 어학적 해독은 다행히 해독자에 따른 異見이 그리 크지 않은 편에 속한다. 향찰로 된 원문을 현대어로 번역한다면 대부분의 해독이 오른쪽 해석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권점은 필자)<sup>3)</sup>

<헌화가> 노랫말의 해독은 그래도 여타의 향가 해독보다 내용상으로 어느 정도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p.242) …… 위 노래에 대해 지금까지 해독한 것 중의 몇몇을 살펴보기로 한다. …… 위 해독에서 첫 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노래 내용에 영향을 줄 정도로 차이는 없다고 본다. (pp.239-241, 권점은 필자)<sup>4)</sup>

이러한 언급들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기존의 어학적 해독을 종합하여 수용한 결과였다. 재검토해보면 아래에서 보이다시피 해독에 의미상의 큰 이견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sup>5)</sup>

	紫布岩乎过希	執音乎手母牛放教遣	吾盼不喻懶盼伊賜等	花盼所叱可獻乎理音如
소창	붉은 바회 2애	잡은손(애) 암소(를) 노히이시고	날 아닌 지 붓글어위이사든	꽃을 썬겨 들이오리이다
양주동	딤배 바회 2희	자뻬은손 암소 노히시고	나홀 안디 붓그리사든	꽃홀 것가 받조리이다
정열모	붉바회 2희	마소 노히시겨.	나홀 아니랴 눈홀 이사든.	꽃홀 것거 받조리 음소
홍기문	붉근 바회 2희	자뻬모 손 어미쇼 노히겨시고	나홀 안디 붓그리 사든	꽃홀 것거 받조리이다
김준영	딤배 바회 2희	잡은손 암소 노히시고	나홀 안디 붓글히사든	꽃홀 것가 받조리이다
서재극	진배 바회 2희	거문 손 암소 노히시건	나홀 아닐 붓그리사든	고졸 것가 받조리이다
김완진	지배 바회 2애	자뻬문손 암소 노히시고	나홀 안디 붓그리사든	고졸 것거 마도립다
유창균	지배 바회 2희	잡은 손 암소 노히시고	나홀 모들 허물허리실들	꽃홀 것가 마도립다
양희철	딤배 바회 2희	자뻬문 슈 어시쇼 놓이시고	나홀 안디 붓그홀이시든	꽃홀 것가 받조리이다
신재홍	딤배 바회 2희	잡은 손 암소 노히시고	나홀 안디 붓그리시든	꽃홀 것가 마도리-다
현대어	붉은 바위 가에	잡은 손에서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드리오리다

그러나 대체적인 해석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헌화가>는 여전히 풀리지

3) 성기옥, 「<獻花歌>와 신라인의 미의식」, 白影 鄭炳昱 先生 10週忌追慕論文集 刊行委員會 編, 『한국고전시가작품론』1, 집문당, 1995, p.55.  
 4) 최용수, 「헌화가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25, 1994.  
 5) 1행에서 보이는 ‘붉은 · 딤배’의 이견은 양주동의 ‘딤배’가 正解로 인정되고(音價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3·4행도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2행의 ‘手’를 ‘소의 고삐를 잡고 있는) 손’으로 해독하느냐, 추상명사(=할) 손’으로 해독하느냐는 비교적 해독의 차가 큰 경우가 된다. 하지만 노래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않은 몇 문제를 지니고 있다. 먼저, 이 노래의 전체적인 맥락과 배경설화의 불일치가 문제가 된다. 배경설화에 따르면 이 노래는 노인이 꽃을 꺾은 이후 수로부인에게 바치면서 부른 것인데, 위의 해독들은 이러한 정황에 배치되고 있다.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 꽃을 꺾어 드리오리다”는 ‘아직 꽃을 꺾기 전’에나 가능한 진술이지 이미 꽃을 꺾은 후에 진술될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마땅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에 대한 근래의 해독들은 다음과 같이 해독이 완료된 곳으로 인식되어 있다.

3. 吾盼 不喻 慚盼伊賜等: ‘나홀 안디 붓그리시든’으로 읽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으로 풀이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sup>7)</sup>

2. 轉句 : 吾盼 不喻 慚盼伊賜等  
전구의 경우 제학자들간 해석상 이견이 없다.<sup>8)</sup>

둘째, 2행의 마지막 향찰자 ‘遣’에 대한 최근의 독법도 문제가 된다. ‘遣’은 소창진평이 ‘고’로 읽은 이래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해 온 字이다. 그러나 위의 諸說을 소개한 표에서 보듯이 정열모나 서재극은 이를 ‘겨 · 견’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고’가 우세한 가운데 ‘겨 · 견’은 소수설에 불과한 것으로 보였기에 그간 이 점은 문학 연구자들로부터 아무런 주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어학측 연구 경향을 보면 이 구절에 대한 이견의 제기 강도가 만만하지 않다. 특히 향가해독에 지속적 관심을 보이는 구결연구자들이 잇달아 ‘겨 · 견’설을 지지함으로써 현재 구결측 연구에 서는 오히려 ‘겨 · 견’으로 읽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독음의 재고는 필연적으로 향가에 나타난 ‘遣’의

6) 일찍이 예창해(『獻花歌』에 대한 한 試論, 『백영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p.318.)도 이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는 水路夫人 說話가 그 산문기록에 있어서는 꽃을 꺾어 바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헌화가』 가사에는 조건부의 미래로 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지적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현대어역과 배경설화가 자연스럽지 못한 관계에 있음을 지적한 자체로 의의가 있다.  
7)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2000, p.76.  
8) 이도흠, 헌화가의 문화사회학적 시학, 『한양어문』 10, 한양어문학회, 1992, p.85.

문법기능과 의미의 전체적 교정<sup>9)</sup>을 동반하는 것이기에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遭’을 ‘겨 · 견’으로 읽는 한 연구자의 <헌화가>의 관련 구절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맺어져 있다.

자주빛 바위 가에                      자주빛 바위 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셨으니<sup>10)</sup>

셋째, 2행의 첫 어휘 ‘執音乎’의 독법 역시 많은 어학 연구자들의 고심을 샀다. 이 어형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제가의 견해가 일치한다. 향찰 특유의 구조<sup>11)</sup>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執’에 결합되어 있는 ‘音’자의 존재와 이에 대한 독법이다. 이 字는 향찰에서 항상 ‘口’을 표시하기에 ‘執音’ 역시 ‘口’을 말음으로 가지는 고유어를 반영한 형태로 확신되는데, 그에 해당하는 옛 어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구절은 한 연구자의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으며 아직도 논쟁처로 남아 있다.

이 ‘執音乎’의 해독사는 ‘音’을 살리려는 노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넷째, 마지막 행의 ‘獻乎理音如’의 독법은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모든 연구에서 우리말로 풀어 읽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드리다 · 받좁다 · 받다’의 어느 하나로 풀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법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 향찰표기에서 漢字는 경우에 따라 한자음으로도 고유어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하는 한자를 우리말로 풀지 않고 한자음 그대로 읽었던 몇 예는 향찰에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前’에 후행한 ‘乃(니)’, ‘民’

9) 현전 향가 25수에서 ‘遭’은 14회나 출현하는, 출현빈도가 매우 높은 字의 하나이다.

10) 황선엽, 「향가에 나타나는 ‘遭’과 ‘古’에 대하여」, 『國語學』 39, 2002, p.24.

11) 이른바 말음첨기의 원리로, 한자 본연의 쓰임새를 가진 字가 앞에 나오고 그 뒤에 받침을 위한 音借字가 오는 구조를 말한다. 본 작품에 나오는 어휘로 예를 들어 본다면 ‘岩乎 · 折叱’ 등이 있는데, 이 때, ‘岩’에 후행한 ‘乎’는 ‘岩’의 고훈 ‘바오’의 ‘오’음을 나타내기 위한 字, ‘折’에 후행한 ‘叱’(차자표기에서는 ‘스’음을 나타내는 字)은 ‘折’의 고훈 ‘젓’의 ‘스’음을 나타내기 위한 字인데, 이렇듯 어휘의 끝에 붙은 ‘乎(오) · 叱(스)’ 등의 字를 末音添記字라고 한다.

12) 양희철, 『三國遺事鄉歌研究』, 태학사, 1997, p.316.

에 후행한 ‘은(ㄴ)’은 모두 선행했던 한자음의 末音들로 이를 한자음 그대로 읽었던 뚜렷한 징표가 되고 있다.

無量壽佛前乃 무량수불 저니 <원왕생가>, 君如臣多支民隱如 군다히 신다히 민다히 <안민가>

본고는 이상으로 거론한 네 가지에 대한 해명을 목적으로 한다. 이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명은 그간 진행되어 온 <헌화가>의 어석적 약점에 대한 보완의 일환이며, 나아가 문학적 해석의 견고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 2. 본론

### 2.1. 慚兮伊賜等の ‘等’

서론에서 간략히 언급했지만 ‘慚兮伊賜等’<sup>13)</sup>은 약간의 음변만 가진 체, 소창진평 이래 현대어역이 통일되어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 꽃을 꺾어 드리오리다”로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확정된 의미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문학적 해석도 진행되었다.

‘나홀 안디 붓흐리샤든’ 이 문맥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노옹의 마음은 또 무엇인가. 4구체로 된 헌화가에 있어서 이 구절만큼 묘미를 자아내게 하는 구절도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은 결국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소서’의 우회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 (이) 구절 속에는 늙은 영감과 젊은 미녀의 만남의 광경이 아니라, 젊은 남자와 젊은 미녀의 만남이 전제가 되어서 그 젊은 미녀로 하여금 수줍은 심경에서 벗어나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노옹의 마음 씩씩이가 내재해 있다고 믿고 싶다.<sup>14)</sup>

13) ‘慚兮伊賜等’은 ‘붓그리시든’으로 읽힌다. “慚과 愧와는 붓그릴씨라<석보상절11:43a>”에서 보이듯 ‘慚兮伊’가 ‘붓그리’에 일치하고, ‘賜’는 주체존대선어말어미인 ‘시’, ‘等’은 차자표기에 서 ‘드(드) · 든(든) · 들(들)’의 음역을 나타내는 字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독이 실상에 부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점검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기존의 어학적 해독이 ‘완전히 안심해도 좋은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구절은 ‘여전히 재고의 여지가 남아 있는 곳’이라 여긴다. 현재의 해독과 배경설화와의 불일치가 그것이다. 만약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꽃을  $\emptyset$  드리오리다” 정도로만 되어 있었다면 현재의 해독은 설화를 잘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해독은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로 되어 있다. 이 해독을 따르면 노인이 꽃을 꺾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른 것이 되어야 한다.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꽃을 꺾어 드리리라”라는 말은 “누추한 행색의 제가 그대에게 폐가 되지 않는다면 꽃을 꺾어 드리지요” 정도의 의미를 띠고 있어 꽃을 꺾기 전에 허락을 구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경설화는 이러한 내용과는 다르다. 전문을 옮기고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성덕왕 때,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할 새,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곁에 절벽이 바다에 임해 병풍처럼 둘러져 있었는데, 높이가 천장이나 되었으며 위에는 진달래가 활짝 피어 있었다. 공의 부인 수로가 그것을 보고 좌우에 말했다. “꽃을 꺾어 줄 자 누구냐?” 따르던 이가 말했다. “사람이 닿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곁에 노인이 암소(牝牛)를 끌고 지나가다가 부인이 하는 말을 듣고서는 그 꽃을 꺾고 노래도 같이 지어(亦作歌) 그녀에게 바쳤다. 그 노인이 어디서 온 이인지는 알지 못한다. (聖德王代 純貞公 赴江陵大守 行次海汀晝饌 傍有石嶂 如屏臨海 高千丈 上有躑躅花盛開 公之夫人水路見之 謂左右曰 折花獻者其誰 從者曰 非人跡所到 皆辭不能 傍有老翁牽牝牛而過者 聞夫人言 折其花 亦作歌詞獻之 其翁不知何許人也) <三國遺事 卷2, 紀異, 水路夫人>

설화에서 보듯, 이 노래는 노인이 이미 꽃을 꺾은 상태에서 부인에게 꽃

14) 박노준, 『新羅歌謠의 研究』, 열화당, pp.213-214.

을 건네며 부른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이란 가정은 불필요한 것이고 이 점으로 본다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해석은 잘못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된다.

그렇다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해독은 어떤 경위로 ‘조건’을 의미하는 ‘부끄러워하신다면’으로 고정되었는가? 이것은 이 구절 말미에 나타난 ‘等’의 독법과 기능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의 견해에서 비롯되었다. 즉, 향찰자 ‘等’은 주로 ‘ㄷ·든·드·든’ 등의 음역을 위해 사용되는 차자<sup>15)</sup>인데 이로 ‘榑伊賜等’을 ‘붓그리시든’으로 읽을 수 있었고, 이 때의 語尾 ‘든(等)’이 마침 선초 언해나 이두 등에서 보이는 조건 어미 ‘든·든’, ‘等’과 일치하기에 이를 ‘부끄러워하신다면’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물론, ‘든·든(等)’이 그러한 음가와, 때로는 ‘조건’의 문법적 기능을 가지는 어미임은 부인할 수 없다. 양주동의 주장과 예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sup>16)</sup>

等 : 通音借 「든」(諧音 「든」, …… 본조 「賜等」의 「等」은 母論 助詞 「든」(든)이니 此種 「等」은 吏文에도 「白等·去等」(畚든·거든)등 널리 쓰여진다.(pp.234-235) …… 「든」은 元來 「ㄷ」의 指定形, …… 將然條件을 表하는 助詞로 轉하였음은 母論이다. (p.315)

15) ‘等’이 ‘ㄷ·드·든·든·들·들’ 등의 음역에 두루 쓰이던 字임은 아래에서 확인된다.

癩疹 豆等良只, 置等羅只<향약구급방>

癩 두드러기 은 <訓蒙字會>

大戟 楊等柒根 楊等柒 <향약구급방>

楊 버들 <新增類合 등>

白等 살등, 爲去等 ㅎ거든, 爲等良 ㅎ드러, 矣徒等 의니등, 爲白去等 ㅎ습거든, 是白乎等 以이습 은들노 <유서필지>

16) 이 설을 최초로 제기한 소장진평은 비록 “賜等은 사든이니 敬語의 條件 ‘무엇무엇하게 된다면’을 의미하는 말이다.”(p.162)라고 하여 이 어휘체에 대해 정확한 문법적 이해를 보여주었으나, 예증적 측면에서는 다음 두 예시를 들었기에 불완전한 논증을 한 셈이 되었다. 그가 든 두 예시 모두 조건의 ‘든’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것들이다.

大夫와 師와 長과로써 承케 ㅎ샤든 逸豫케 호미 아니라 <書傳諺解>

師를 作 ㅎ샤든 <同書>

愼厥終홀든 惟其始 | 니 <서경언해 권6> (p.315)

그의 지적대로 ‘든·든’은 선초의 언해와 이두 등에서 ‘조건’ 즉, 현대어의 ‘-하면’에 해당하는 의미를 띠는 경우가 있어, 위에서 보이는 ‘그 끝을 신중히 하려면 오직 처음을 신중히 하라(愼厥終홀든 惟其始 | 니)’와 같은 곳에서 그 용법이 확인되고 있다. 문헌 범위를 보다 넓혀 검증해 보아도 역시 다음과 같은 조건의 ‘든·든’이 나타나 그 용법의 보편성을 확인시킨다.

도훈 法이 오나든 드리고 구준 法이 오나든 드리디 아니호미  
<월인석보7:45a>

아들웃 나거든 安樂國이라 호고 딸이어든 孝養이라 호라  
<월인석보8:83b>

春初氣和爲去等 堅地乙 起畊爲乎矣 <農書輯要>

초봄에 기운이 온화하거든 굳은 땅을 갈아 일으키되 (필자해석)

凡京官及在外五品以上官亦 犯罪爲去等 申聞爲 伏候王旨爲白遣  
<대명률직해 1:9a>

무릇 서울 및 서울밖 5품이상의 관리가 죄를 범하거든 신문하여 왕의 처분을 기다리고 (필자해석)

그러나 본고가 문제 삼으려는 것은 ‘든·든(等)’이 ‘조건의 어미’로서 뿐만 아니라 ‘이유의 어미’로도 흔히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음의 용례들이 그것이다.

이 말 니롱 저귀 한 사르미 막다히며 디새며 돌호로 터든 避호야 드라 머  
리 가 住호야셔  
<월인석보17:85a>

聖王 셔실 나래 술위 느라오나든 그 술위를 투샤 나라해 다 들니실씩  
<월인석보1:19b>

너르미여 겨스리여 호 말도 아니코 안짖거시든 머리에 가치 샷기 치더니  
<석보상절: 3:38b>

諸佛스 甚히 기픈 헝덕 니르거시든 든좁고 너교디 <석보상절9:27a>

矣身 平日 備忘謄寫之本 多在司謁房是白去等 與所謂摹寫 以一處憑考 則可知 제가 평일에 備忘記를 베껴 쓴 책이 사알방(司謁房)에 많이 있으니 이른바 어필을 모사했다는 것과 같이 놓고 비교해 보면 알 것입니다. <大東野乘 권40, 光海朝日記 一, 癸丑, 五月 十五日>

金悌男謂鄭俠曰 崔起南段 水火中救我者是如爲有去等 與金悌男親切事狀從實直告 <大東野乘 권40, 上同> 김제남이 정협에게 이르기를, 최기남은

물불 속에서도 나를 구해 줄 사람이라고 하였다.’하였으니 김제남과 친하게 지낸 경위를 사실대로 아뢰라……하여 여쭙니다.

위 예문에서, ‘터든’은 ‘치면’이 아닌 ‘치니 · 치므로’의 의미이고, ‘나라 오나든’ 역시 ‘날아오면’의 의미가 아니라 ‘날아오니 · 날아오므로’의 의미이다. 그 아래 이두에서도 ‘等’은 ‘면’이 아닌 ‘하니’의 의미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그간 우리는 ‘等(든 · 든)’을 지나치게 조건의 ‘면’으로만 이해한 셈이 된다. 동일한 어형으로 ‘니 · -므로’의 의미 또한 가지는 이상 이를 해독에 반영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 기준은 오로지 문맥과 설화에 바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럴 때, 이곳은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니’가 될 수밖에 없다.

## 2.2. 放教遣의 ‘遣’

‘遣’은 現代音 · 鮮初音 · 當代音 모두 ‘견’<sup>17)</sup>이지만 이두와 향찰에서는 ‘고’음이 필요한 위치에 나타나고 있다. 살피면 다음과 같다.

### 【이두】

是遣이고, 爲白遣호츨고, 爲是遣호잇고 <儒胥必知>

蘭遣聲近而東俗 呼蘭고치 呼峴고개 吏讀呼遣고 此必東方古音也 <頤齋遣

17) 遣 보낼 견 <千字文(光州) · 新增類合>

藁 卷25, 雜著, 華音方言字義解>

石塔伍層乙 成是白乎 願表爲遣 成是不得爲乎 : 석탑 오층을 이루려는 원을 표하고 이루지 못한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1031년>

【향찰】

執音乎手母牛放教遣 <헌화가> 此地盼捨遣只於冬是去於丁 <안민가>  
 西方念丁去賜里遣 <원왕생가> 惱叱古音多可支白遣賜立 <원왕생가>  
 慕人有如白遣賜立 <원왕생가> 四十八大願成遣賜去 <원왕생가>  
 此矣有阿米次盼伊遣 <제망매가> 毛如云遣去內尼叱古 <제망매가>  
 日遠鳥逸〇〇過出知遣 <우적가> 今吞藪未去遣省如 <우적가>  
 淨戒叱主留卜以支乃遣只 <보현4> 十方叱佛體闕遣只賜立 <보현4>

자료적 상황이 이러하기에 본 字는 향찰 연구 초기부터 ‘고’음을 표기한 것으로 정확히 파악되어 있다.<sup>18)</sup>

그런데, 근래에 들어 향찰의 ‘遣’을 푼함에 충실히 ‘겨/견’으로 읽고 기능 또한 ‘~한 상태로 · ~하니’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파악하고자 한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sup>19)</sup> 조선후기 이두문헌에 명시된 독법 ‘고’는 향찰의 시대와는 거리가 있기에 향찰 당대의 음은 반드시 ‘고’가 아닐 수 있다는 점, 향찰의 ‘遣’은 선초문헌에 나타나는 연결어미 ‘-고’와는 기능상 차이를 가진다는 점을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주장들은 ‘遣’의 푼함을 찾기 위한 제의이지만, 본고는 그 설을 과도한 것이라 본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遣’의 음이 한자 자체로 명백한 ‘견’이라는 전제를 인정하기가 어

18) 소창진평과 양주동의 이 字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遣只’는 조사 ‘고’이다. 『儒胥必知』와 기타의 책에는 어쩐지 「遣」을 ‘고’라 읽고 있다.” <小倉進平(1929), p.90.>

“詞腦歌中에는 接續詞「고」를 「遣」字外에 「古」로 기사한 幾多의例가 있는데, 이兩字의 區別을 보건덴, 「遣」은 오즉 接續詞「고」에만 專用되고 다른 一般「고」音에는 使用되지못함에 反하여, 「古」는 모든 「고」音에 通用되는 點이다.” <양주동(1965), pp.216-217.>

19) 황선엽, 「향가에 나타나는 ‘遣’과 ‘古’에 대하여」, 『국어학』 39집, 국어학회, 2002.

장윤희, 「고대국어 연결어미 ‘-遣’과 그 변화」, 『구결연구』 14집, 구결학회, 2005.

럽다. 물론 唐代의 음이 ‘견·견’임은 인정된다.<sup>20)</sup> 그러나 우리의 한자음이 반드시 唐의音を 따라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본토 한자음과는 관계없는 독법을 가지기도 한다. 다음의 ‘涿·道’가 그 예이다.

辰韓本燕人避之者 故取涿水之名 稱所居之邑里 云沙涿 漸涿等 羅人方言 讀涿音爲道 故 今或作沙梁 亦讀道 (진한은 본래 연나라 사람들이 피난해왔던 것이므로 탁수(涿水)의 이름을 따서 그들의 사는 읍과 마을을 일컬어 사탁(沙涿)·점탁(漸涿) 등으로 불렀다”고 말했다.—신라 사람의 방언에 탁(涿)의 음을 도(道)라고도 했으므로 지금도 혹은 사량(沙梁)이라고 쓰고 양(梁)을 또한 도(道)라고도 읽는다.) <三國遺事 卷1, 紀異, 辰韓>

沙梁部 梁讀云道 或作涿 亦音道 (사도부. ‘梁’은 ‘도(道)’라 읽는다. 혹은 ‘涿’이라고도 쓰는데 역시 ‘도(道)’라 읽는다.) <三國遺事 卷1, 紀異, 新羅始祖赫居世王>

곤 方言의 특수성으로 인해 ‘遣’을 /고/로 읽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향찰을 포함한 차자표기에서 차자의 음과 한자 원래의 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없는 자도 역시 존재한다. 항상 ‘디(지)’로 읽히는 ‘喻’<sup>21)</sup>字라든가, ‘스’을 위해 쓰이고 있는 ‘叱’<sup>22)</sup>字 등과 같은 것이

20) 當代音은 향찰표기 시대와 일치하는 중국 唐代의 음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두보(杜甫, 712-770)의 詩에 쓰인 韻은 ‘遣’의 音이 /견/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시에서 ‘遣’字는 ‘卷·展·轉·辨·犬’과 함께 쓰이고 있다.

… 一麾出守還 黃屋朔風卷 不暇陪八駿 虜庭悲所遣 平生滿樽酒 斷此朋知展 憂憤病二秋 有恨石可轉 肅宗復社稷 得無逆順辨 范曄顧其兒 李斯憶黃犬 …… <杜甫, 故秘書少監武功蘇公源明>

이외 자서류 문헌도 遣의 음상이 /견/임을 알려 준다.

遣 去演切 <六書故 卷16>, 鑿 遣政切 <六書故 卷4>, 鱗 石遣切 <六書故 卷20>

21) 이두의 몇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是喻인지, 不喻아닌지, 爲喻흔지, 是乎喻이온지, 爲白乎喻흔숱온지 <儒得必知>

不喻 訓아닌지 <五洲衍文長箋散稿, 詩文篇·論文類, 文字, 語錄辨證說>

22) 이두와 향찰의 몇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糞 叱同蹻, 羊蹄 所乙古叱술운, 菖蒲 松衣乍叱根송의맛불휘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그 예들이다. 따라서 ‘遣’의 옛음이 ‘견’이라는 점으로 차자표기에서 ‘고’로 쓰였을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성급한 일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에서 보이는 當代 ‘遣’과 ‘古’의 호환성은 ‘遣’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고’를 위한 字로 사용되어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사항이 된다.

惱叱古音多可支白遣賜立 <원왕생가>

慕人有如白遣賜立 <원왕생가>

今日部頓部叱懺悔 十方叱佛體闕遣只賜立 : 오늘 우리 모두 참회함을 시방의 부처님은 알아 주십시오 <균여전, 보현4>

大王下 當只 知古只賜立 我隱 今爲隱 衰老爲良 身隱 重疾良中 … : 대왕이시여 반드시 아십시오 나는 지금 老衰하여 몸은 重疾에 … <華嚴經疏 10:17>

王位乙 捨爲良 以良 於我衣中 瞻是古只賜立 : 왕위를 버림으로써 나에게(나를) 도우소서 <華嚴經疏 11:08-11>

汝隱 今爲隱 有斗奴隱 所乙 悉良 當只 我衣中 與爲古只賜立 : 당신은 지금 있는 바를 다 반드시 나에게 주소서 <華嚴經疏 10:07-08>

위 「원왕생가」에서 보이는 ‘白遣賜立’(슌고시서, 말해 주십시오), 「普賢十願歌」에서 보이는 ‘闕遣只賜立’(알곡시서, 알아 주십시오)’는 모두 존귀한 대상에 대한 공손한 願望을 나타내는 환경에서 사용되면서 ‘동사 + 遣 + 只(기, 강세사) + 시(賜, 주체존대선어말어미) + 셔(立, 존칭 願望)’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구결에서는 같은 환경에서 ‘遣’字 대신 ‘古’字를 代用하고 있음을 본다. 즉, ‘동사 + 古 + 只 + 賜 + 立’으로 되면서 ‘遣’이 있어야 할 자리에 ‘古’를 기입해 사용하고 있음을 본다. 이 사실은 ‘遣’과 ‘古’가 이미 당시에도 같은 음, 같은 기능이었음을 자체로 증명한다. 만약 ‘遣’의 음이 ‘겨 · 견’이었으면 그 자리에 ‘古’가 들어 갈 까닭이 없다. 호환의

進叱 닛드러, 始叱 비롯 <유서필지>

際叱(찬기과랑가), 際 ㄹ 제 <新增類合>, 城叱(혜성가), 城 ㅈ 성 <新增類合>

또 다른 예도 있다.

此地捨遣只於冬是去於丁 <안민가>

‘遣’이 만약 두 연구자의 추정처럼 ‘겨·견’이라면 위 「안민가」의 ‘捨遣只’은 ‘브리격’으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이 어형은 문증되지 않으며, 자체로도 의미를 이루지 못한다. 아무래도 다음의 구절과 언해들이 보여주는 ‘捨爲古只 · 離支古只 · 브리곡 · 여희옥’과 호환되는 표기체로 보이는 것이다.

偽飾乙 捨爲古只 眞實處良中 到飛立 <華嚴經 03:01>

貪瞋癡乙 棄爲古只 罪叱 法乙 罽除爲飛立 <華嚴經 04:12>

煩惱乙 離支古只 究竟寂滅爲飛立 <華嚴經 03:11>

너희 出家호거든 날 브리곡 머리 가디 말라 <釋譜詳節 11:37a>

별곰과 어드움과 虛空을 여희옥 見元을 눈호아 <楞嚴經諺解 03:95a>

이런 상황으로 본고는 ‘遣’의 음가는 향찰표기의 당대에 이미 ‘고’였다고 추정한다.

다음의 근거, “중세어에서 ‘-고’는 동작의 완료적 의미를 가지지 지속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향찰의 ‘遣’은 지속의 의미를 가지는 바, 중세의 ‘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는 주장을 살핀다. 편의상 황선엽(2002:19)의 논거를 재인용한다.

- ㄱ. 太子 | 하디고 가실 제 <월석 11, 6b>
- ㄴ. 니블 아나 가 자물 누를 브트러뇨(抱被宿何依) <두시언해24, 50a>
- ㄷ. 마조 가실 부터는 白象을 타 가거시늘 <월석 21, 189a>

이러한 용례로 ‘-고’는 어떤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쓰이고, 동시동작 혹은 지속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아나 · 타’와 같은 ‘-아’형을

취한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서동요』에서 보이는 ‘抱遣去如’를 ‘안고 가다’로 읽을 수 없으며 따라서 향찰의 ‘遣’은 ‘고’로 읽을 수 없는 것이라 보았다. 하지만 이는 다음의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결론으로 보인다. 선초의 문헌은 ‘-아’ 뿐만 아니라 ‘-고’로도 여전히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아기 안고 뛰어 드르시니 <釋譜詳節 03:37a>

아바니를 맞나스바 두 허뒤를 안고 우더니 <月印釋譜 08:100b>

훈 노미 큰 象 트고 오시며 <月印釋譜 10:28a>

훈 婆羅門이 하늬 고졸 잡고 오거늘 <釋譜詳節 23:40b>

문헌적 제약으로 ‘-고 가(去)’의 용례는 드물다 할지라도 이와 유사한 자질을 가지는 ‘-고 오(來)’, ‘-고 뛰(躍)’의 경우 지속의 의미를 표하며 ‘-고’를 사용하고 있다. 곧,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트 가거시늘’ 뿐만 아니라 ‘트고 오시며’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들로 향찰표기에 쓰인 ‘遣’은 ‘겨/견’으로 읽힐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로 읽어야 하며, 기능 또한 선초의 연결어미 ‘-고’와 同軌에 있다고 판단된다.<sup>23)</sup>

23) 본고의 ‘遣’에 대해 다소 번다하게 설명한 것은 ‘遣’의 음가에 국한된 어학적 반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향찰의 해독에서 독음의 수정은 경우에 따라 문법기능과 의미의 수정을 수반한다. 문제는 이러한 一字의 문법기능과 의미 수정은 해당 작품의 一句의 의미 수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同一字가 나타나는 모든 작품에 동일한 경위의 수정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현화가>의 ‘放教遣’의 독법이 ‘노히시견’이라면, <서동요>의 ‘抱遣去如’ 또한 ‘안견가다’로 되어야 하고, <원왕생가>의 ‘四十八大願成遣賜去’는 ‘48대원 일견사서’, <제망매가>의 ‘毛如云遣去內尼叱古’는 ‘모다 닛견 가나닛고’로 수정되어야 한다. 즉, 향찰에서 一字를 수정한다는 것은 어학적으로는 향찰표기체계 전체를 건드리는, 문학적으로는 향가 작품 여러 편의 문맥을 바꾸는 重且大한 작업이 된다.

더구나 마침 本歌의 이 구절은 특이하게도 어학의 最近說과 문학의 最近說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 있기에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한 형편이다. 어학에서 이 구절을 ‘자주빛 바위’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셨으니’로 보는 연구자가 있음은 서론부분에서 언급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보다 8년 앞서 문학에서도 이를 ‘하셨으니’로 본 연구자가 있었다. 신재홍의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2행 끝의 ‘고(遣)’가 조건 혹은 양보절을 이끄는 연결어미인 점이 이러한 문맥 속에서 파

### 2.3. 執音乎手の ‘音’

‘執音乎’가 현대어 ‘잡은’ 정도의 의미를 띠는 말일 것임은 소창진평 이래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해 왔다. 字義로 보나 說話的 文脈<sup>24)</sup>으로 보나 ‘執’은 ‘암소의 고삐를 잡다’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執’에 후행한 ‘音’이었다. 차자표기에서 ‘音’字는 주요한 末音添記字로 반드시 ‘口’으로 끝난 단어에 후행하는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執音’ 역시 ‘口’으로 끝나는 고유어 ‘執’의 古訓을 표기한 형태로 추정되었<sup>25)</sup>, 특히 ‘執音’으로 나타나는 향찰의 또다른 용례가 있어 이 점은 확실시되었다.

火條執音馬 <보현3>

그러나 문제는 鮮初의 풀이들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옛訓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부분 현대어와 같은 ‘잡-’으로 풀이되어 있는 것이다.

執 자불 집 <新增類合 등>

執은 자불 씨오 <月印釋譜 序 01:22b>

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수로부인이 ‘농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시다’의 문맥이 아니라, ‘고(遣)’가 조건이나 양보절을 이끄는 연결어미로 쓰여서 ‘농게 하시니, 농게 하시거늘’의 문맥인 것이다.”(신재홍, p.76)

그러나 본문에서 말했듯이 어학측 견해는 ‘음운적 · 문법적 근거’가 모두 위태한 것이고, 문학측 견해 또한 ‘-고’란 음의 연결어미가 ‘이유 · 양보’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 보는, 본고로서는 수긍할 수 없는 진술을 통하여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또한, 이 노래에서 ‘-니’는 제3행의 ‘든(等)’이 담당하고 있기에 문맥상으로도 이 곳은 ‘-니’로 볼 수가 없다.

24) “傍有老翁牽犂牛” <三國遺事 卷2, 水路夫人>

25) 주요 업적 중에는 이곳에 나타나는 ‘音’을 선행한 동사 ‘執’의 말음이 아니라 ‘문법요소’일 것으로 추정할 경우도 있다. 양주동은 이곳의 ‘音’을 ‘으’를 위한 것으로 보았으며, 김완진은 ‘持續態’의 선어말어미 ‘음 · 음’으로 보았다. 하지만, 양주동의 설은 ‘音’字가 차자표기 전반에서 모두 ‘口’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고, 김완진의 설은 ‘지속을 나타내는 여타의 음 · 음’으로 우선 문헌을 통하여 뒷받침한 후, 다시 ‘執音’이 그러한 예들과 유사한지 아닌지를 논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즉, 여러 단계를 건너 뛴 時機尙早의 說로 판단된다.

執取는 자바 가질씨니 <楞嚴經諺解 04:16a>

이러한 사정에 의해 ‘口’을 반영한 ‘執’의 고유어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추정되었다. ‘거머 쥐다’에 착안한 서재극의 ‘검-’, ‘주먹’에 착안한 유창균의 ‘줍-’, ‘움켜쥐다’에 착안한 신재홍의 ‘움-’ 등은 ‘執’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口’음을 가진 고유어를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나 ‘거머 쥐다’가 ‘執’의 의미와 통하는 것은 ‘쥐다’에 있지 ‘거머’에 있는 것이 아니며, ‘주먹’의 ‘줍’은 ‘줍다’란 동사 어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쥐다’의 명사형 ‘줍’에서 나온 것이기에 본 항의 문법형태를 만족시키지 못하며, ‘움켜 쥐다’가 ‘執’의 의미와 상통하는 것은 역시 ‘쥐다’에 있는 것이지 ‘움켜’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수긍할 수 없는 견해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잡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 어간에 ‘口’을 지닌 고유어를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다음의 문헌들에서 보이는 ‘심기’라는 어휘가 주목된다. 이 어휘가 ‘(손을) 잡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sup>26)</sup>

손 심기샤문 자바 니스시는 뿌디라 <법화경언해 07:177b>

行者의 모물 비취시고 諸菩薩들과로 소닐 심겨 迎接하시거든  
<월인석보 08:48b>

金蓮華 가지시고 五百 부터를 지셔 와 마즈샤 五百化佛이 혼뻬 소닐 심기  
시고 讚嘆하야 니르샤디 <월인석보 08:53b>

네 大乘을 行하야 第一義를 알찌 내와 迎接하노라 하시고 즈른 化佛와로

혼뻬 소닐 심기시리니 <월인석보 08:51a>

法華妙道 | 燈明의 根源하야 妙光의 傳持하야 然燈의 니셔 부터와 부터왜

소닐 심기시며 光明과 光明과 서르 니스실찌 <월인석보 12:13a>

용례들은 모두 ‘심기’의 형태로 ‘(손을) 잡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26) ‘심기다’는 예시와 같은 ‘잡다’란 의미 외에, ‘전해 주다(授)’의 의미로도 많이 사용된다.

教授는 7러쳐 심길씨라 <석보상절 06:46b>

諸大弟子이게 阿耨多羅三藐三菩提記 심기샤물 듣조오며 <법화경언해 04:04>

데, 본고는 ‘執音’이 이 어휘를 나타낸 어형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심곤 손’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執音(심) + 乎(곤) + 手(손)’의 형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추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몇 고찰해야 할 사항들<sup>27)</sup>이 더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은 後稿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우선 그 가능성만 언급한다.

### 2.4. 獻乎理音如의 ‘獻’

이 구절의 ‘獻’은 한자어 본연의 쓰임새로, 일반적 고훈은 ‘받습· 올리습-’이다.

獻 받즈올 헌 <訓蒙字會>

賣花女俱夷善慧人 뜯 아스바 夫妻願으로 고졸 받즈 븿 시니  
<月印釋譜 01:3b>

내 이 말스물 받줍 고져 호노라 : 吾欲獻此辭 <杜詩初刊 25:38a-b>

그를 올이습고 皇帝를 뵈스오니 : 獻書謁皇帝 <杜詩初刊 22:26b>

그렇기에 이 구절은 양주동 이래 많은 업적들에서 ‘받줍-’으로 읽혔다. 그러나 김완진이 지적했듯이, 그러한 경우라면 왜 뒤에 ‘白’이 오지 않았는

27) 이 가설에서 검증해야 할 사항이란 ‘乎(은)’로써 ‘심-’의 말음 ‘곤’을 나타낼 수 있는나란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능하다. 다음과 같이 어간의 말음이 이중자음일 때, 간혹 후행하는 자음을 생략한 채 표기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갓가’의 말음 ‘-기’를 표기하기 위해 ‘可’를 쓴 <현화가>의 ‘折叱可’도 있지만, ‘갓가’의 ‘가’를 위해서 아무 자도 표기하지 않은 다음 용례들도 있는 것이다.

吾道修의 良待是古如 <제망매가>, 修叱의 賜乙隱頓部叱吾衣修叱의 孫丁 <보현5>

만약 충실한 표기였다면 <제망매가>의 ‘修良’은 ‘修叱可(갓가)’, <보현5>의 두 ‘修叱’은 모두 ‘修叱可’로 나타났을 것이다.

한편, 이 추정은 ‘執’의 원형적 고훈이 ‘심-’이었다는 가설로 대체될 수도 있다. 즉, ‘執(심) + 乎(은) + 手(손)’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보현3>의 ‘火條執音馬’에서 보듯이, ‘執’의 고훈에 ‘-기’말음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표기를 존중할 때 ‘執’의 원형적 고훈은 ‘심-’이었고 후대 어느 때에 ‘-기’ 등의 접사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도 있게 된다. 이는 ‘심다(植)’의 고훈이 ‘심다 · 시므다 · 심구다’ 등으로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한다.

가에 대하여 초기연구자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듯하다. 만약 위와 같이 ‘받잡-’으로 읽었을 것이라면 아무래도 ‘獻白乎-’와 같은 구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로 김완진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대체로 ‘바도-’ 정도로 읽고 있는 것을 본다. ‘獻乎’의 ‘乎’를 살려 ‘바도-’의 말음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이 후 유창균<sup>28)</sup>이 이 설을 더욱 강화한다. 다음의 용례에서 보이는 ‘奉’의 훈을 제시하면서이다.

書를 바도니 옷기습 들이요물 許訶시다 : 奉詔許牽裾  
 <杜詩初刊 20:42b-43a>

奉은 바들씨라 <月印釋譜 서1:13a>

그러나 유창균이 인용한 두 ‘奉’의 용례는 모두 ‘드리다’의 의미가 아니다. 먼저, 『두시언해』의 ‘書를 바도니’는 다음을 잘못 인용한 것이다.

詔書를 바도니 옷기습 들이요물 許訶시다 : 奉詔許牽裾  
 <杜詩初刊 20:42b- 43a>

곧, ‘詔書’의 ‘詔’를 누락하여 인용한 것인데, 이를 보충하여 이해하자면 ‘드리다’의 의미가 아닌 것이다. ‘詔書’는 천자가 신하에게 내리는 글이지 ‘신하가 천자에게 드리는 글’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 구절은 ‘조서를 받들다(받아 들었다)’란 의미인 것이다. 『月印釋譜』의 전체구절은 다음과 같다.

崇奉(註) 崇은 尊호씨오 奉은 바들씨라 <月印釋譜 序 01:13a-b>

곧, ‘崇奉’이란 어휘를 설명하면서 나오는 말인데, ‘崇奉’은 ‘귀하게 여겨 떠 받든다’는 말로, ‘드린다’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뜻을 잘 받아들여 모신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상, 둘다 ‘떠받든다’라는 의미를 담은 용례들이기에 ‘드린다’란 의미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sup>29)</sup>

28) 유창균, 『항가비해』, 형설출판사, 1994, p.300.

29) 『李朝語辭典』(劉昌惇, 연세대학교출판부, 14版, 2000.)에서도 같은 잘못이 보인다. ‘親히 覺

여타의 문헌을 확인해 보아도 ‘반-’은 ‘반다 · 받들다’ 이외의 의미는 가지지 않는다.

受 바들 슈 <訓蒙字會>

한 煩惱 바도미 受陰이오 <月印釋譜 02:14b>

그렇다면 이 ‘獻乎-’는 어떤 독법을 지시하는 말인가? 이는 향가, 고려의 석독구결, 선초의 문헌들에서 보이는 漢字를 직접 읽은 구결로 보아야 한다. 석독구결과 선초의 문헌들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인 것이다.

無量壽佛前乃 무량수불 저니 <원왕생가>, 君如臣多支民隱如 <안민가>

國土乙 護乎令叱 因緣乙 : 국토를 護호릿 因緣을 <舊譯仁王經 03:17-19>

미나리를 獻호문 조고맛 이리오 : 獻芹則小 <杜詩初刊 16:64b>

곳 獻호요물 어느 나래 門徒를 許홀다 : 獻花何日許門徒 <杜詩重刊09:20a-b>

따라서 이 구결은 ‘獻호립다’로 읽어야 하는 곳이 된다.<sup>30)</sup>

胤을 바도미(親奉覺胤) <楞嚴經諺解 08:24>를 인용하며 ‘받들어 바치다’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覺胤’은 ‘중생이 부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30) 한편 ‘獻호립다’의 ‘호립다’는 ‘호오립다’의 준말로, 이 중 ‘리’는 말하는 이의 ‘의도(혹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이다. 선행한 어간 ‘獻’의 時點을 알리는 말로, 선초언해의 다음에 비견되는 형태소이다.

나도 이제 三乘을 說法호리라 <월인석보4:48b>, 나를 버리고 出家호느니 나도 出家호리라 <월인석보7:3b>

후행한 ‘-르다(音如)’는 ‘가능 · 당위 · 의도’의 뜻을 띠는 말이다. 구결에서 자주 보이는 信隱 能支 一切 佛乙 示現爲在音叱多 <화엄경 10:07>

믿음은 능히 일체 佛을 示現할 수 있다. (필자해석)

吾隱 今爲隱 先良 諸隱 菩薩 [爲]沙音 佛果乙 護乎令叱 因緣亦 十地叱 行乙 護乎令叱 因緣亦乎乙 說白乎音叱多 <구역인왕경03:19>

나는 지금 먼저 모든 보살 위해 佛果를 지키는 인연과 十地의 行을 지키는 인연이라 하는 것을 說하오려 한다. (필자해석)

와 같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이 어미의 의미범주에 대하여는 박진호(『借字表記 資料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제7권, 4호, 국립국어연구원, 1997.), 장윤희(『舊譯仁王經 구결의 종결어미』, 『口訣研究』, 제5집, 구결학회, 태학사, 1999.)를 볼 것.

## 2.5. 문학적 의의

이상에서 본고는 「헌화가」에서 그간 무심히 지나쳤거나, 논쟁이 끝나지 않았던 ‘等 · 遣 · 音 · 獻’의 4字에 대해 새로운 시각의 해독을 시도하였다. 이제 이러한 해독의 교정과 보완이 문학적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간략히 언급하려 한다.

먼저, ‘執音乎’을 ‘심은 · 시문’으로 읽는다거나, ‘獻’을 ‘헌’으로 읽는다거나 하는 것은 전술했듯이 시의 의미 파악 개선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이미 의미는 漢字자체로 파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법이 주는 향가 연구상의 의의는 적지 않다. 향찰표기를 當代가 의도한 음절에 어긋남 없이 정확히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향가의 율격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가 되어 주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는 향가의 율격을 파악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그 노력과 열의에 비해 현재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初入을 들어서기는 했지만, 그 초입에서부터 우리는 여러 연구자의 각기 다른 목소리의 숲에서 진행의 방향을 잡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중 두 목소리를 들어 본다. (괄호속은 行, 그 옆 숫자는 해독한 음절수)

헌화가 (1) 6 (2) 10 (3) 9 (4) 8<sup>31)</sup>

헌화가 (1) 6 (2) 9 (3) 9 (4) 9<sup>32)</sup>

위 두 견해는 제2행과 4행에서 각기 다른 음절수를 제시하고 있다. 제2행에서는 ‘執音乎手’에 대한 견해차(자브문손 / 음운손)에서 음절수가 차이 났으며, 제4행에서는 ‘獻乎理音如’에 대한 견해차(바도림다 / 바도리이다)에서 음절수가 차이 났다. 모두 같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지만 독법에 따라 음절수가 갈렸고, 이것으로 향가의 율격에 대한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31) 김완진 상계서, p.26.

32) 신재홍, 「향가의 율격 분석」, 『고전문학과 교육』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0. p.154.

본고에서 다른 ‘執音 · 獻’에 대한 독법은 이러한 爭鳴의 상황에 대한 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연결어미나 종결어미에 대한 정확한 音價 파악은 그 자체만으로도 물론 중요하다. 시의 一字一字는 직간접적으로 시의 율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중 연결어미나 종결어미는 行의 末尾에 나타나 시의 韻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sup>33)</sup>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정확한 음가 파악이 초래할 해독과 해석상의 오류들 혹은 모순들이다. 위에서 다룬 ‘遣’의 音價는 그 점에서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된다. 본고에서는 이를 ‘겨 · 견’으로 읽으면서 그 의미는 ‘-하니 · -거늘’로 보자는 어학측 · 문학측의 최근 제안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는데, 그것은 전술한 문헌적 근거로써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 발생할 여러 해독의 문제들로써도 거듭 강조될 수 있다. 당장 부딪치게 되는 <서동요>의 한 구절 ‘抱遣去如’를 보자. 위 제안을 극단적으로 따를 때, 우리는 이를 ‘안겨 가다’로 읽으면서 해석을 ‘안으니 가다 · 안거늘 가다’ 등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文理로 볼 때 이는 타당한 독법이 될 수 없다. 역시 기존의 독법대로 ‘안고 가다’가 정확한 것이다.

‘(3행)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니 (4행)꽃을 꺾어 바치립시다’로 해독된 것은 어떤 문학적 효용이 있는가? 우선 3행의 말미에서 이유의 ‘니’를 포착해냄으로써 그간 제기되었던 제2행의 마지막 - 放教遣(노히시고) -이 ‘이유’의 연결어미라는 몇 연구결과를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자줏빛 바위 가에 움켜쥔 손에서 암소를 놓게 하시니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리이다”<sup>34)</sup>인데 이는 노랫말 자체로만 본다면 매

33) 향가 중 脚韻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원왕생가>일 것이다. 예시하면

- 1 月下伊底亦      2 西方念丁去賜里遣      3 無量壽佛前乃      4 惱叱古音多可支白遣賜立
- 5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      6 兩手集刀花乎白良      7 願往生願往生      8 慕人有如白遣賜立
- 9 阿邪 此身遣也置遣      10 四十八大顯成遣賜去

와 같은데 4 · 8 · 10의 종결부가 모두 ‘동사어간 + 遣賜立’으로 되어 있어 일정한 리듬을 느끼게 한다. (10행의 ‘去’는 ‘立’의 잘못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줄고 『삼국유사소재 향가의 원전비평과 차자 · 어휘 변증』(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39)를 참조할 것.)

34)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p.77.

끈한 해독이지만 배경설화와 연결어미의 용법으로 검토해 볼 때는 수궁하기 어려운 해독이었다. 2행 끝의 ‘遣’과 3행 끝의 ‘等’이 올바르게 문중된 해독이 아니었을 뿐더러 설화적 정황도 충실히 반영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면 ~ 하리라’와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니 ~ 하리라’가 가지는 뉘앙스의 차이는 노인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시사를 준다. 현재 <현화가>를 둘러싼 문학적 해석의 쟁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바로 ‘노인의 정체’이다. ‘소를 몰고 가는 일개 村夫<sup>35)</sup>’라는 파악에서부터, ‘그 노인이 어디서 온 이인지는 모른다(其翁不知何許人也)’라는 구절에 근거한 ‘神人’설까지 추정의 변폭은 큰 편이다. 그러나 각 입론이 설화를 충실히 따른 것이기에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현재까지도 팽팽한 각축을 하고 있다. 즉, ‘시골마을 - 소 - 촌로 - 山勢를 잘 아는 촌로의 折花’는 전혀 무리가 없는 전개이기에 그 주장도 타당하게 여겨지고,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른다’란 심상치 않은 묘사와 ‘사람이 닿을 곳이 아닌 곳<sup>36)</sup>에 핀 꽃을 꺾어 바치는 행위’, 게다가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보이는 ‘神異한 바다가의 노인’의 이미지와 겹쳐 후자의 주장도 타당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그런데 본고의 해독은 이 두 주장 중 後者에 일정 무게를 더한다.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라’는 기존 해독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뉘앙스’를 풍겨 ‘귀부인을 조심스러워 하는 시골 촌로’와 호응하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니 꽃을 꺾어 바치오리라’는 ‘주체적 판단’이 드러나고 ‘능동적인 뉘앙스’를 풍겨 그녀를 소원을 들어주는 ‘神人’에 보다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즉, 전자는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맡겨 둔 채 상대방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조심스러운 뉘앙스가 강하고, 후자는 화자 스스로 상대방을 행동을 판단한 후, 마치 그 보상으로 ‘그대가 그러하니 내가 드리리라’라는 뉘앙스가 강하다. 만약, 전자의 주장처럼 ‘소를 몰고 가던 평범한 村老’였으면 ‘귀부인’ 앞에서 이러한 ‘판단과 보상’의 뉘앙스가 가득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35) 박노준이 대표적이다.

36) “從者曰 非人跡所到 皆辭不能” <三國遺事2, 水路夫人>

만약 이 해독이 정당하다면, ‘어디에서 온지 알 수 없었던 <수로부인>조의 노옹’이 ‘村老’가 아닌 ‘神人’이라고 판결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된 셈이다.

### 3. 結論

이상 본고는 「현화가 에서 그간 무심히 지나쳤거나, 논쟁이 끝나지 않았던 ‘等 · 遣 · 音 · 獻’의 4字에 대해 새로운 시각의 해독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그간 ‘等’은 ‘든 · 든’으로 읽히며 조건의 연결어미 ‘-면’과 같은 의미로 파악해왔다. 그러나 선초문헌과 이두자료를 살핀 결과 ‘든 · 든’은 이유의 연결어미 ‘-니’와 같은 의미로도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의미는 노래의 배경설화에도 부합되는 것이기에 본고는 이를 해독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2. ‘遣’은 최근 구결측 연구자들에 의해 ‘겨 · 견’으로 읽히는 경향이 강하다. 두 젊은 연구자가 연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遣’은 전통적으로 ‘고’로 읽혀 온 차자로 여러 자료적 정황상 이를 부인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결의 ‘捨爲古只 · 古只賜立’가 향찰의 ‘捨遣只 · 遣只賜立’에 정확히 대응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이 자를 예전대로 ‘고’로 되돌려 읽을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최근의 문학연구자로부터 ‘遣’의 의미가 ‘-거늘’일 수 있다고 주장되기도 했으나 이 역시 문헌적으로는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3. ‘音’이 향찰을 포함한 모든 차자표기에서 ‘口’음을 위한 字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하여 본 노래에 나오는 ‘執音’ 역시 ‘口’을 살려 해독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간의 견해로는 이를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했다. 문헌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견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심’으로 보았는데 이는 선초의 『법화경』이나 『월인석보』 등의 정음자료에서 자주 보이는 ‘손을 잡다’란 의미의 “소닐 심겨 迎接히시거든” 등의 구절을 반

영한 것이었다. 이는 詩意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나, 향찰에서 모든 ‘홉’은 ‘口’이라는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향찰자의 기능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자뵤온 손 · 자뵤문 손’ 등 3음절로 해독되던 것을 2음절로 고정하였다는 점에서 어학적 · 문학적 의의가 큰 발견이 된다.

4. ‘獻’은 그간의 연구에서 ‘드리 · 받좁 · 받’ 등 반드시 고유어로 전환된 채 해독되었다. 그러나 향찰과 유사한 문법형태로 인정되는 고려시대의 석독구결 등에서 漢字는 音讀되기도 했고, 선초 문헌에서도 ‘獻호 · 獻호’ 등의 자료가 보여 이것을 꼭 고유어로 읽을 필요는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향찰 독법의 또다른 방식을 喚起하였고, 또 그간 제기되어 왔던 의문 ‘받좁’이라면 왜 ‘白’이 나타나지 않았나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론을 바탕으로 「헌화가 를 재해독하면 다음과 같다. 본고가 의도한 중간 결과물인 셈이다.<sup>37)</sup>

【原文과 音寫】	【현대어역】
紫布岩乎邊希 질뵤바오엠희	자춌빛 바위 가에
執音乎手母牛放教遣 시口온손암쇼노히시고	잡은 손에서 암소 놓게 하시고
吾勝不喻佛勝伊賜等 나홀안디뵤그리시든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시니
花勝折叱可獻乎理音如 꽃홀거스거獻호리모다	(應當) 꽃을 꺾어 바치립니다 <sup>38)</sup>

#### ◆ 補論

위 결론 부분에 제시한 최종 해독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圈點은 借字)

37)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어휘에 대한 간략한 해독은 논문 말미에 붙인 【補論】을 참조할 것.  
38) 당시는 ‘獻호리다’로 읽었을 것이지만, 현대어역이기에 ‘바치립니다’로 표기하였다.

1. 紫布岩乎邊希 : 질비 바오 궤희

1-1. 紫布岩乎: 紫岩의 향찰식 표기. 곧 ‘붉은 바위’. ‘紫布岩乎’에서 ‘布’와 ‘乎’는 未音添記로 ‘紫’의 고훈 ‘질비’, ‘岩’의 고훈 ‘바오’의 각 末音을 나타내기 위한 字. 원래 ‘紫’는 『계림유사』에 ‘紫曰 質背’라 되어 있어 ‘질비’<sup>39)</sup>로 읽힐 가능성도 있으나, 同書에서 鮮初의 ‘의~보’음에 대응<sup>40)</sup>되어 ‘꺨’가 나타나고 있기에 그 先代音을 ‘뵤’로 추정할 수 있다. ‘乎’는 한자음으로는 ‘호’이나 借字로는 주로 ‘오’<sup>41)</sup>을 나타낸다. 따라서 ‘바오’<sup>42)</sup>

1-2. 邊希: 邊에 處格助詞 ‘希’가 결합한 형태. ‘邊’의 훈은 ‘궤’<sup>43)</sup>. ‘希’는 향찰 표기에서 항상 처격조사 ‘히 · 희’를 위해 사용되던 字.<sup>44)</sup>

2. 執音乎手母牛放教遣 : 심은 손(에서) 암쇼 노히시고

2-1. 執音乎手: 執音은 ‘심’(본문을 참조할 것). ‘乎’는 향찰과 이두 등의 차자 표기에서 ‘오 · 온’을 위해 쓰이는 字.(위 ‘巖乎’를 볼 것). 여기서는 의도법의

39) ‘꺨’는 옛 음이 ‘뵤’이다. “背 등 뵤”<훈몽자회>  
40) 다음과 같이 대응된다.

- 袴 珂背, 棍 安海珂背 <鷄林類事>
- 棍 高의 군, 袴 高의 고 <訓蒙字會>
- 襪 背戊 <鷄林類事>
- 襪 보선 말 <新增類合>

41) 乎 온 호 <광주천자문>, 爲乎赫 호오며 <유서필지>  
42) ‘巖’의 고훈은 ‘巖 바회 암 <千字文(光州)>, 巖 바우 암 <역대천자문>” 등에서 보듯이 ‘바회 · 바우’로 나타나지만, 본고에서는 ‘바오’로 상정한다. 다음의 자료에서 보듯 신라시대에는 말음에 ‘ㅎ’음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孔巖縣 本高句麗 濟次巴衣縣 <삼국사기, 권35, 志, 地理>”

43) 邊은 𠵼시라 <月釋1:1b>

44) 향찰의 처격은 ‘良 · 衣 · 矣 · 希 · 阿希 · 惡希 · 衣希 · 良中 · 也中’ 등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의 하나이다. 다음의 향찰에 쓰인 ‘希’字의 총 용례들이다.  
紫布岩乎邊希 <현화가>,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 <원왕생가>  
逸烏川理叱磻惡希 <찬기과랑가> 法界惡之叱佛會阿希 <보현6>

‘오’에 관형형 ‘나’이 결합된 ‘온’. ‘手’는 손. 충실한 표기라면 ‘手良’의 형태로 표기되어 ‘손에서’란 의미를 나타내었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처격의 조사 ‘良’이 생략되어 나타났다. 향찰표기에서 조사의 생략은 매우 흔한 편이다.<sup>45)</sup>

2-2. 母牛: ‘암소’로 읽힌다. 배경설화에 “傍有老翁牽牝牛而過者”<sup>46)</sup>으로 나타나기에 해독에 문제가 없다. 배경설화의 ‘牝牛’가 노래에서는 ‘母牛’로 바뀐 것은 이 두자가 同義語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sup>47)</sup>

2-3. 放教遣: ‘노히시고’로 읽힌다. ‘放’은 ‘농’<sup>48)</sup>, ‘教’는 ‘이시’<sup>49)</sup>, ‘遣’은 ‘고’.

3. 吾勝不喻慚勝伊賜等 : 나홀 안디 붓그리시든

3-1. 吾勝 : ‘곰’는 한자어 본연의 쓰임새. ‘勝’은 목적격조사 ‘홀 · 흘’.<sup>50)</sup>

- 45) 향찰에서 격조사의 생략은 수의적 측면이 있다.(\*)은 필자 보충)  
母牛(\*份) 放教遣 <홀, 현화가>, 彌勒座主(\*份) 陪立羅良 <홀, 도술가>, 蓬次叱菴(\*良)中宿尸夜音有叱下是 <으, 모죽지랑가>, 慕人(\*是)有如 <이, 원왕생가>, 此身(\*份) 遣也置遣 <홀, 원왕생가>, 四十八大願(\*份) 成遣賜去 <홀, 원왕생가>, 察尸(\*良中) 不冬爾屋支墮米 <아히, 원가>, 千隱手(\*良中)叱 千隱目盼 <아히, 도천수대비가>
  - 46) 牝 암 女 <訓蒙字會>
  - 47) 양주동은 이를 ‘암(雌)=엄(母)’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으나, ‘母’가 ‘엄’이라는 점은 ‘어미’ 등의 어휘로 추론될 뿐이지 직접적으로 ‘母=엄’임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신라 향가에서는 ‘母史(안민가)’ 등에서 보이듯 ‘母=엄’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다음의 용례에서 보이듯이 ‘母’의 한자 의미가 ‘암’인 경우라 하겠다. 五母鷄 二母麤 無失其時 老者足以無失肉矣 <孟子, 盡心 上>
  - 48) 放은 노홀 씨오 <月釋21:207b>
  - 49) ‘教’는 전통 吏讀書에서 다음과 같이 ‘존칭의 선어말어미’로 설명하고 있다.  
大抵吏吐 臣告君賤告貴 則皆加白字 又用教是等語 是字爲字 隨勢改換爲好 : 대저 이두는 신하가 임금께 고하거나 친한 사람이 귀한 사람에게 고할 경우 모두 ‘白’자를 더하거나 ‘教是’ 등의 말을 덧붙인다. ‘是’자와 ‘爲’자는 문맥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유서필지, 해석 필자>  
하지만, 본 항에서는 높임과 동시에 ‘사역’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0) 다음에서 보인다.  
花勝折叱可獻乎理音如 : 고졸 <현화가>                      心未際叱勝逐內良齊 : 갓홀 <찬기과랑가>  
游鳥隱城叱勝良望良古 : 잣홀 <혜성가>                      膝勝古召勝 : 무루플 <도천수대비가>  
千隱手叱千隱目盼 : 누늘 <도천수대비가>                      一等下叱放一等盼除惡支 : 흐드늘 <도천수대비가>  
窟理叱大盼生以支所音物生 : 六趣를 <안민가>                      此盼喚惡支治良羅 : 이를 <안민가>  
此地盼捨遣只於冬是去於丁 : 이 씨홀 <안민가>                      際于萬隱德海盼 : 벼르를<보현>
- 한편, ‘乙’ 역시 삼국유사소재 향가의 ‘목적격조사’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엄밀히 분석해 보면 삼국유사 소재의 향가에서는 ‘乙’이 목적격조사로 쓰인 예가 없다. 이에 대하여는 박재

3-2. 不諭 : 이두에 자주 나타나는 어휘로 ‘안디’로 읽힌다.<sup>51)</sup> 의미는 ‘아니’.

3-3. 慚伊賜等 : ‘慚伊’는 ‘붓그리.’<sup>52)</sup> ‘賜’는 주체존대선어말어미 ‘시’<sup>53)</sup>, ‘等’은 이유의 연결어미 ‘든’.

4. 花勝折叱可獻乎理音如 : 꽃홀 것거 獻호립다

4-1. 花勝折叱可 : ‘花’는 한자 본연의 쓰임새, ‘勝’은 목적격조사 ‘홀·홀’을 위한 借字. ‘折’<sup>54)</sup>은 한자 본연의 쓰임새, ‘叱’은 선행한 ‘折’의 말음 ‘스’<sup>55)</sup>, ‘可’는 ‘거’<sup>56)</sup>. 이상, 꽃홀 것거.<sup>57)</sup>

4-2. 獻乎理音如 : ‘獻乎’은 ‘獻호(‘獻호오’의 축약형)(본문을 참조할 것). ‘理’

민(『삼국유사소제항가의 원전비평과 차자 · 어휘 변증』,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p.160.)을 참조할 것.

51) 이두서에서는 ‘아닌지(不諭 아닌지 <儒符必知>)’로 나타나는데 이를 양주동이 ‘안디’로 읽었다. 근래에 발굴된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에서도 ‘不知’의 형태가 나타나 그의 說 ‘안디’일 것임을 확인시켰다.

한편, 이 형태는 향가에서 1회 더 나타난다. “吾衣身不諭仁人音有叱下呂 <보현5>”

52) 慚과 愧와는 붓그릴 씨라 <석보상절11:43a>

53) ‘賜’는 후대의 차자표기에서는 ‘스’를 위한 차자로 쓰였다. 다음과 같이 ‘이스랏’의 ‘스’를 위해 ‘賜’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郁李 山叱伊賜羅次 <鄉藥救急方>, 櫻 이스랏 잉 <訓蒙字會>”

그러나 『集韻』의 “賜 並斯義切 音思”란 기록을 볼 때 향찰의 시기와 가까운 중국 唐代의 음은 ‘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思’가 ‘詩 · 遲 · 期’등과 韻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寂寞書齋裏 終朝獨爾思 更尋嘉樹傳 不忘角弓詩 短褐風霜入 還丹日月遲 未因乘輿去 空有

鹿門期 <杜甫, 冬日有懷李白>

54) 折 것글 절 <新增類合>

55) 주지하다시피 ‘叱’은 차자표기에서 ‘스’음을 위해 상용된다.

糞叱同躡, 羊蹄 所古叱술웃, 菖蒲 松衣叱根송의맛불휘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향가에서도 ‘스’말음을 가지는 명사나, 동사의 어근에 접속되어 나타난다. 한두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際叱 <찬기과랑가>, 際 ㄹ 제 <신증유합>, 城叱 <해성가>, 城 ㅈ 성 <신증유합> · 광주천 자문 · 훈몽자회>

功德修叱如良來如 <풍요>, 修行은 ㄷ가 行홀씨라 <月釋2:25a>

56) ‘可’는 차자표기에서 ‘가 · 거’ 두 음으로 읽힌다. 본고는 향찰을 비롯한 차자표기는 ‘아 · 어, ‘오 · 우’의 교체가 자유로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이곳의 ‘可’를 ‘거’로 읽는다.

5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향찰식 표기인 셈이다.

바미 두서 가짓 고줄 부러 것거 버리는다 : 夜來吹折數枝花 <두시초간권10:07b>

는 ‘리’<sup>58)</sup>, ‘흙’은 ‘口’<sup>59)</sup>, ‘如’는 ‘다’<sup>60)</sup>를 위한 향찰자. 이상, ‘理<sub>1</sub>흙<sub>1</sub>如’는 ‘음다’로 읽히는데 이는 구결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어형으로 ‘應當’에 호응하는 어미들이 다. 즉, ‘가능 · 당위 · 의도’의 뜻을 띠는데<sup>61)</sup> 본 노래에서는 ‘-하시니 (응당) 꽃을 꺾어 바치렵니다’로 연결되어 적절한 문맥을 형성하고 있다.

58) 몇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慕理尸心 <모죽지랑가>, 慕는 그럴 씨라 <능엄경언해2:54b>

世理 <원가>, 世 누리 세 <훈몽자회>

川理 <찬기과랑가>, 正月 나릿 르른 <動動 正月障>

59) 삼국유사 소재 향가에 나타나는 ‘흙’을 선초 언해의 어휘와 대응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心<sub>1</sub>흙 <도솔가> : 心 닛<sub>1</sub>심 심 <훈몽자회 등>, 憂<sub>1</sub>흙 <모죽지랑가> : 憂 근<sub>1</sub>심 우 <신증유합 등>

夜<sub>1</sub>흙 <모죽지랑가> : 夜 밤 야 <신증유합 등>, 雲<sub>1</sub>흙 <찬기과랑가> : 雲 구름 운 <신증유합 등>

60) 다음의 대응으로 알 수 있다.

東京明明月良 夜入伊 遊行如可 <처용가>

東京<sub>1</sub>불<sub>1</sub>근<sub>1</sub>드래 새도록 노니다가 <악학궤범, 처용가>

爲<sub>1</sub>行<sub>1</sub>如<sub>1</sub>可 ㅎ엿다가, 是<sub>1</sub>如 이다, 是<sub>1</sub>如<sub>1</sub>乎 이다온, 爲<sub>1</sub>有<sub>1</sub>如<sub>1</sub>乎 ㅎ잇짜온, 爲<sub>1</sub>白<sub>1</sub>如<sub>1</sub>乎 ㅎ숯짜온,

爲<sub>1</sub>白<sub>1</sub>如<sub>1</sub>可 ㅎ숯짜가 <儒脣必知>

‘如’가 ‘다’음을 위해 쓰이는 이유는 ‘如’의 훈이 ‘-답다 · -다이’ 등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믿어지는데, 이는 소창진평이 최초로 제기한 이래 정설이 되어 있다. 그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如’자는 어떤 까닭으로 다로 읽히는 것일까. 이 자의 고훈이 속한 예 중에 ‘實<sub>1</sub>다이아라 (如<sub>1</sub>實<sub>1</sub>知<sub>1</sub>之)’ 등의 ‘다이 · 다와’는 정확히 이 ‘如’의 훈에 들어맞는다. 또 ‘사름답다’ 등의 ‘답<sub>1</sub>다’도 그 기원은 같은 것이다. <小倉進平, p.141.>

61)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박진호(『借字表記 資料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제 7권, 4호, 국립국어연구원, 1997.), 장윤희(『舊譯仁王經 구결의 종결어미, 『口訣研究』, 제5집, 구결학회, 태학사, 1999.)에서 행해진 바 있다.

참고문헌

1. 著書

金完鎭,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_\_\_\_\_,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南豊鉉, 《借字表記法研究》, 檀大出版部, 1981.  
 박노준, 《新羅鄉歌의 研究》, 열화당, 1982.  
 小倉進平, 《鄉歌及び吏讀の研究》, 1929. (아세아문화사, 1974.)  
 서재극, 《신라향가의 어휘 연구》, 계명대출판부, 1975.  
 성호경, 《신라 향가 연구 - 바른 이해를 위한 탐색 - 》, 태학사, 2008.  
 申載弘, 《향가의 해석》, 집문당, 2000.  
 梁柱東, 《增訂 古歌研究》, 일조각, 1965.  
 楊熙喆, 《三國遺事鄉歌研究》, 태학사, 1997.  
 兪昌均, 《鄉歌批解》, 형설출판사, 1994.  
 윤영옥, 《韓國古詩歌의 研究》, 형설출판사, 1995.  
 이승재, 《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 1992.  
 鮎貝房之進, 《雜攷》, 1931-1938. (본고는 《原本國語國文學叢林：原本 향약체위  
 율령 俗字攷·俗文攷·借字攷 合本》, 大提閣, 1988을 이용함.)  
 장윤희,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國語學叢書 41, 國語學會, 太學社, 2002.  
 정열모, 《신라향가주해》, 국립출판사, 1954.(한국문화사 영인, 1999)  
 \_\_\_\_\_, 《鄉歌研究》,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崔 喆, 《향가의 문학적 해석》, 연세대학교출판부, 1993.  
 홍기문, 《향가해석》, 과학원, 1956.

2. 論文

김영수, 〈향가와 산천제의의 상관성 고찰 - 헌화가와 해가를 중심으로〉, 《한문  
 학논집》 19, 근역한문학회, 2001.  
 박진호, 〈借字表記 資料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제7권 제4호 거  
 울, 국립국어연구원, 1997.  
 서철원, 《新羅 鄉歌의 抒情主體相과 그 文化史的 展開》,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  
 교 국어국문학과, 2006.

- 성호경, 〈향가 분절의 성격과 시행구분 및 율격에 대한 시론〉, 《향가문학연구》, 백영정병욱선생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83.
- \_\_\_\_\_, 〈향가연구의 함정과 그 극복을 위한 모색〉, 《국어국문학》 100, 국어국문학회, 1988.
- \_\_\_\_\_, 〈향가 작품의 시적구조와 난해어구의 의미 범주〉, 《韓國詩歌研究》 9, 한국시가학회, 2001.
- 신재홍, 〈향가의 인용구문과 시적 특성〉, 《한국시가연구》 12, 한국시가학회, 2002.
- \_\_\_\_\_, 〈혜성가의 역사적 배경〉,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 \_\_\_\_\_, 「향가의 율격 분석」, 『고전문학과 교육』 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0.
- 양희철, 〈鄉札 ‘支’과 ‘支’의 解讀〉, 《국어국문학》 104, 국어국문학회, 1990.
- \_\_\_\_\_, 〈慕竹旨郎歌의 創作 時期 一瞥〉, 《한국시가연구》 창간호, 한국시가학회, 1997.
- \_\_\_\_\_, 〈향가 10구체설의 논거〉,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 유창균, 〈韓國 詩歌形式의 基調〉, 《李秉岐博士頌壽論文集》, 三和出版社, 1966.
- \_\_\_\_\_, 〈향가에 나타난 ‘支’에 대하여〉, 《藏菴池憲英先生華甲記念論叢》, 동간행위원회, 1971.
- 이도흠, 〈현화가의 문화사회학적 시학〉, 《한양어문》 10, 한국언어문화학회, 1992.
- 이 용, 〈연결 어미 ‘-거든’의 문법사적 고찰 -전기 중세국어 차자 표기를 중심으로-〉, 《口訣研究》 4, 口訣學會, 1998.
- 이승재, 〈향가의 遣只賜와 구역인왕경 구결의 ‘ㄱㅏㅓ’에 대하여,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김완진선생 회갑기념논총, 민음사, 1991.
- \_\_\_\_\_, 〈鷄林類事와 借字表記 資料의 關係〉, 《大東文化研究》 3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5.
- \_\_\_\_\_, 〈借字表記 研究의 成果와 課題〉, 《光復50周年 國學의 成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장윤희, 〈석독 구결 자료의 명령문 고찰〉, 《口訣研究》 2, 口訣學會, 1997.
- \_\_\_\_\_, 〈석독구결 자료의 감탄법 종결어미〉, 《口訣研究》 4, 口訣學會, 1998.
- \_\_\_\_\_, 〈舊譯仁王經 口訣의 종결어미〉, 《口訣研究》 5, 口訣學會, 1999.
- \_\_\_\_\_, 〈고대국어연결어미 ‘-遣’과 그 변화〉, 《口訣研究》 14, 口訣學會, 2005.
- 鄭在永, 〈借字表記 연구의 흐름과 방향〉, 《새국어생활》 제7권 제4호 겨울, 국립국어연구원, 1997.
- \_\_\_\_\_, 〈合部金光明經(권3)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研究》 3, 구결학회, 1998.
- \_\_\_\_\_, 〈鷄林類事의 高麗方言에 나타난 文法形態에 대한 研究〉, 《口訣研究》

12, 구결학회, 2004.

최선경, 《향가의 제의가적 성격 연구》, 박사논문,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1.

최정여, 〈향가분절고〉, 《동양문화》 제6·7집, 영남대동양문화연구소, 1968.

황선엽, 〈향가에 나타나는 ‘遣’과 ‘古’에 대하여〉, 《國語學》 39, 2002.

\_\_\_\_\_, 〈원왕생가〉의 해독에 대하여, 《口訣研究》 第17輯, 口訣學會, 2006.

## On the interpretation of Heonhwaga(獻花歌)

Park Jaemin

*Heonhwaga*(獻花歌), one of the *hyangas*(鄉歌) in *Samgukyusa*(三國遺事), has been known as not containing any linguistically controversial point. However, some of its expressions still require closer examination. Firstly, the predominant interpretation on its third and fourth lines do not match with its context. I solved this problem by reexamining the grammatical function of 'teung(等)' in these lines. Secondly, I investigated 'kyoen(遣)' that belongs to the second line. This letter recently became the core of controversy as some scholars insisted in succession that it should be pronounced as 'kyeo/kyeon(겨/견)'. However, this recent theory does not have sufficient proofs. Thus, I argued that this letter should be pronounced as 'ko(고)' as previous scholars interpreted. Lastly, I examined pronunciation in several other parts: 'chipum(執音)' and 'heonho(獻乎)'. 'Um(音)' in 'chipum(執音)' has not been pronounced properly in the existing ways of interpretation. I proved that it is the sign that indicates the last phonetic value of 'sim(심)'. I also clarified the pronunciation of 'heon(獻)' in 'heonho(獻乎)' that has been also hitherto unverified.

key words: *hyanga*(鄉歌), *Heonhwaga*(獻花歌), 'chipum(執音)', 'heonho(獻乎)', *Samgukyusa*(三國遺事)

접수일자 : 2009. 4. 10 심사기간 : 2009. 4. 20~2007. 5. 10 게재결정 : 2009. 5. 20
--